

<2012년 12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와 같이 먹어야 목에 안 걸린다.
2. 꿀을 못 본다.
3. ‘꿀을 못 본다’ 라는 한 가지 잠언 속에 100가지 잠언이 들어 있다.
4. 땅콩 몇 개를 먹으니 꿀을 못 보게 껍데기와 부스러기가 나와서 깨끗한 방을 더럽혔다. 이로 인해 ‘꿀’에 대한 잠언이 시작됐다. 땅콩을 통한 자연 계시다.
5. 사탄과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성자 주님의 편이면, 꿀을 못 보고 나타난다.
6. 사람들은 남이 잘되면 꿀을 못 본다.
7. 땅콩을 까면 껍데기와 부스러기가 생기듯이, 어떤 일을 하면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콩은 안 보고 껍데기와 부스러기만 보고 꿀을 못 본다.
8. 과일도 껍질 꿀을 못 보면 못 먹는다.
9. 이 시대도 기성은 하늘이 보낸 자의 꿀을 못 본다. 알맹이로 인한 껍질이 있는데, 알맹이는 안 보고 꼭 껍질만 보고 꿀을 못 본다.
10. 어떤 사람은 남이 잘되면 밤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신경 쓰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려고 악평하면서 허

가 닳도록 씹다가 결국 자기 혀를 씹고 자기 영혼까지 씹어 죽이고 고통 속에서 산다. 남이 잘되면, 그 방법을 따라서 해라. 그러면 자기도 잘된다.

11. ‘꿀을 못 본다’ 라는 것은 껌데기 같은 꿀을 못 보고 못 참고 지적한다는 것이다.
12. 알맹이 사명 꿀은 안 보고, 그 사명으로 일어나는 껌데기 꿀을 못 봐 주고, 타작마당의 겨 날리듯 날리면서 입이 부르트듯 말한다.
13. 남의 약점 꿀을 못 보고 지적하는 자들은 하늘도 그가 행한 대로 약점 꿀을 못 보고 지적하신다.
14. 섭리사에서 형제의 약점 꿀을 못 보는 자들, 곧 관용이 없는 자들아. 마지막으로 고쳐라!
15. 모기, 파리, 귀신, 사탄 꿀을 못 봐 주는 것은 좋은 마음이다.
16. 형제의 눈의 티를 못 봐 주는 자들아. 먼저 네 눈에 쓰레기통이 들어 있는지 보라.
17. 하나님과 주가 보실 때, 꿀 못 보는 자가 되지 않게 벗어나라!
18. 부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팀 안에서 서로 꿀을 못 보고 자기 식으로만 하는 자들아. 주께서 각자 행한 대로 저울질하여 행하신다.
19.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라.

20. 형제의 꼴을 못 보고 지적하는 자들은 하늘도 그 꼴을 못 보신다.

21. 꼴 못 보면 이혼이다. 이와 같이 꼴 못 보면 어떤 자는 사망길로 가고, 어떤 자는 탕감 길로 가고, 어떤 자는 회개 길로 가고, 어떤 자는 치료하러 간다.

<2012년 12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22. 자기 꿀은 잘 봐 주면서 남의 꿀은 못 봐 준다.

23. 참는 쪽이 꿀을 보는 자다.

24. 참지 못하는 자, 곧 꿀을 못 봐 주는 자는 자기 꿀도 못 봐 주게 된다.

25. 남의 꿀을 못 봐 주면 결국 남을 죽이고, 그 성질로 자기도 죽인다.

26. 남을 살려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살린다.

27. 남을 살리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살린다.

28. 어떤 사람은 그토록 고생하여 얻고 찾은 생명인데, 이 꿀 저 꿀 안 보고 떠나간다.

29. 달고 쓴 것들을 다 겪으면서 이 꿀 저 꿀 다 보고 살면, 어느 날 안개가 걷혀 청아한 하늘이 보이고 기다리던 소망이 이루어진다.

30. 잘되려면, 이 꿀 저 꿀 다 보기다.

31. 성자 분체는 34년 동안 이 꿀 저 꿀 다 보고 심정 태우면서 왔다. 그래서 오늘날 성자 주님이 좋아하신다.

32. 선생 꿀 못 보고 섭리 집을 떠난 자들이 지금 무슨 꿀을 보고 사는지 아느냐. 사탄 꿀 세계에서 별의별 꿀을 다 보고 겪고 먹으면서

괴로워하며 산다.

33. 문어가 꿀뚜기 꿀 못 보겠다고 바다를 떠나느냐. 떠나는 문어만 모래 위에서, 땅에서 살아야 된다.

34. 어떤 사람은 성자 주님의 꿀도 못 보겠다고 하며 성자 주님도 못 믿겠다고 한다.

35. 꿀 중에는 배신 꿀, 악평 꿀, 억울하게 하는 꿀, 자기 양심을 뭉개면서 행하는 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인·가정·민족·세계·시대를 꼭 심판하신다.

36. 예쁜 꿀도 못 보고 미운 꿀도 못 보고 외면하고 불신하느냐. 예쁜 자가 밍게 변장하고, 미운 자가 예쁘게 변장했다. 네가 꿀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느냐.

37. 성자는 때마다 방법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꿀로 나타나셔서 신후사를 알지 못하게 하신다.

38. 예쁜 꿀도 미운 꿀도 모두 보고 감사하면서 가면, 그로 인해 얻게 된다.

39. 둘 중의 한 가지에는 꿀이 있으니 얻지 않겠느냐.

40. 자기 꿀 보듯, 남의 꿀도 보아라.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41. 성자 주님은 여러 꼴로 나타나신다.

42. 만물 통해서, 생활 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43. 성자 주님이 쓰고 나타나시는 여건과 사물은 네 마음을 노크하는 벨이다.

44. 성자 주님이 노크하시면, 그 여건과 사물만 보지 말고 노크하고 들어오는 애인을 보아라.

45. 꼴을 보는 자는 참을성이 많은 자요, 근성을 고친 자다.

46. 성자 주님은 만물로 노크하면서 오시는데, 사람들은 만물만 쳐다보며 논다.

47. 성경에 성자 주님은 ‘구름’ 으로 노크하면서 재림한다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 구름만 쳐다본다. 정말 그 꼴을 못 보겠다.

48. 노크하고 들어오신 주를 보고 신랑을 봐야지, ‘하늘 구름’ 만 쳐다보느냐. 구름 타고 오신 주를 맞은 자들아. 너희들도 주를 맞았으면 주를 봐야지, ‘청중 구름’ 만 보느냐. 이 답답한 꼴을 어디까지 보겠느냐. 온전히 주를 맞는 자들과만 잔치할 것이다.

49. 성자 주님이 육신 쓰고 오셨는데, 그 꼴을 못 보고 안 믿느냐. 성자가 하신 일을 육만 보고 안 믿으면, 너만 구원길 못 가고 손해다. 성자가 쓰시는 그 육도 주다.

50. 해를 맞고 해와 같이 살아야 어둠의 꿀 속에서 살지 않는다.
51. 이 시대 사람들은 마치 혼인 잔칫집에서 신랑 꿀 안 보고, 음식 꿀과 손님 꿀만 보는 신부와 같으니, 신랑 마음 꿀이 어떠하겠느냐.
52. 때가 되면 이 꿀 저 꿀 안 보고 오직 신랑 꿀에 빠진 신부만 데려간다.
53. 음식 꿀, 손님 꿀만 보던 신부는 때가 되어 음식도 안 보이고 손님도 안 보이면 그제야 신랑 꿀을 보려고 신랑을 찾아다닌다. 그때 신랑 꿀을 볼 수 있겠느냐.
54. 허둥지둥하는 신부의 꿀을 봐라. “내가 낮이 나갔나 봐. 음식 꿀만 쳐다보고 손님 꿀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 혼자 있는 꿀이 되었구나.” 하고 탄식한다.
55. 신랑을 맞아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부들이 창밖으로 신랑을 못 맞은 자들의 꿀을 쳐다보면서 “하마터면 나도 저 꼬락서니 될 뻔했네.” 하며 충격 받고, 옆에 있는 신랑 성자 주님을 끌어안고 감사 감격하니 신랑 되신 성자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정신이 드는구나!”
56. 그리고 또 신랑 되신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꿀 저 꿀 다 보고 참고 견디었기에 신부 차원에 오른 거다. 나를 끌어안고 놓지 마라.” 하신다.
57. 무슨 꿀을 하고 다니든지 가만둬라. 그래야 그 꿀을 제대로 알게 된다.

58. 성자 주님은 성경에 다시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 꿀 저 꿀 다 말해 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그대로 행하신다.
59. 이 꿀 저 꿀 가만히 두고 봐라. 꿀을 못 보고 못 참고 더 잘해 주려고 돕고 손대지 말아라. 그러다 귀뚜라미 다리 끊어지듯 해가 된다.
60. 다쳐서 상처가 난 곳이 다 나아 가는데, 딱지 앓은 것을 보고 흉하다고 꿀을 못 보고 쥐어뜯으면 오히려 덧나서 치료 기간이 더 늦어진다. 그리고 흉터 생긴다.
61. 꿀을 꼭 봐야 된다. 꿀은 꼭지다. (그림)
62. 꿀을 보다 보면, 반드시 결국 꿀을 보게 된다.
63. 꿀을 보고 참고 살아라. 그러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가서 젖도 먹고 꿀도 먹고 살아간다. (그림)

<2012년 12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계획도 없는데, 자기네끼리 싸워서 서로 원수가 된다.
2. 자기 생각대로 해 놓고서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조화다.” 한다.
3. 자기 생각일 뿐이다.
4.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만물이고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5.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만물도 사람도 크고 빛이 난다.
6. 만물이고 사람이고 인간이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른다. 오직 깨닫는 자만 안다.
7.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8. 기록하는 것이 지혜다.
9. 기록하는 것이 옆의 비서가 돕는 것보다 더 크다.
10. 기록하는 자는 기억의 천재가 된다.
11. ‘기록의 기회’ 는 생각났을 때다.
12. 기억났을 때 기록해 왔다가 때 맞춰서 행하기다. 이때가 실천의 기회다.

13. 바늘 하나도 여러 가지로 쓰면 신비하듯이, 자기 몸도 여러 가지로 쓰면 신비한 것이다.
1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고로 인간으로서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같이 행할 수 있다.
15. 만물도 인간도 모두 개성의 보화들이다.
16.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려면, 먼저 깨닫게 하신다.
17.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인간을 돕기 위해 개인·민족·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했다고 한다.
18. 치매 환자는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모르듯이, 인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나 모를 뿐이다. (안 도와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와준 것을 못 깨닫고 몰라서 모르는 것이다.)
19. 인간이 동물을 아무리 도와줘도 동물이 모른다 해도 인간은 동물을 기르는 재미로 산다.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 그러하시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알고 행한다면 ‘구원’이다. 고로 하나님과 주님은 그 영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평생 모르고 살다가 끝나면 ‘육’은 세상에서 끝나고, 그 ‘영’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계로 가게 된다.
20. 인간은 참지 못해서 끝까지 꼴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꼴을 다 보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때가 되면 꼴을 안 보시고 선악 간에 갇아 주신다.

21. 끝까지 꼴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때가 되면 꼴을 안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22. 꼴은 십자가다.
23. 성자 주님도 그 분체도 때가 될 때까지 십자가를 져 주다가 정한 때가 되면 십자가를 안 져 준다.
24. 결국은 망하고 끝나는데, 그 시간에 자기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면서 가지, 뭇 그렇게 냅을 팔고 몸을 팔고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구경하느냐.
25. 자기 때에 자기 육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혼도, 영도 구원하기 위해 부지런히 구원길을 가라.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받을 때는 깊은 감명의 잠언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읽어 보면, ‘왜 이 잠언을 썼지?’ 하게 된다. 그때 그 처지에서 잠언을 받고서 때가 지나 처지와 상황이 다른 차원에서 읽어 보기 때문이다. 그때, 그 상황, 그 처지의 계시의 잠언이다.
2. 고로 계시받은 자가 바로바로 뛰어다니면서 전해 줘야 된다.
3. 사람은 너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과 성자는 너를 찾으신다. 왜 찾았냐고 물어보아라. 하나님과 성자가 너를 찾아도 네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 모른다.
4.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도 모른다. 신의 소리도 안 들리고, 그 모습도 안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을 어떻게 만나겠느냐. 인간이 전능자 신을 찾아라.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다.
5. 신과의 대화는 인간이 먼저 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6. 세상은 모두 자기 존재 중심이다.
7.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가서 말해도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펴기 바쁘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자기중심의 말뿐이다. 자기 사고와 자기 인식으로 살기 때문이다. 고로 내가 가던 길이나 어서 가라고 자유의지대로 등을 떠밀어 주었다. 그는 자기중심대로 살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인생 열차에서 내렸는데, 그제야 놀라서 간이 떨어졌다.

8. 내가 전능자 하나님과 나의 구원주인 성자와 붙어 사니, 누구든지 내게 붙는 자는 하나님과 성자와도 일체 되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9. (어떻게 불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것이냐?) 자기 자신과 싸워 불의를 이긴 것이 사탄과 싸워 이긴 것이다.
10. 자기 육성을 죽이고 불의를 이긴 자가 영적 대전쟁에서 이긴 승리자다.
11. 사탄과만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라! 자기 육성 때문에 사탄이 침범하여 자기와 전쟁한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라! 사탄은 너를 침범하여 너의 육을 가지고 너를 이기려 하지, 조건 없이 그냥은 못 이긴다.
12. 자기 육성을 완전히 멸해 버려라! 이러한 자가 영적 대전쟁의 영웅이다.
13. 사탄은 너의 육성을 가지고 하늘의 마음인 너의 영성과 싸워 이기게 하려 한다. 그래서 너의 육성이 너의 영성을 이기면, 사탄은 너의 육성을 통해 너를 침범한다. 매일 그같이 한다. / 고로 자기 육성을 이긴 자는 사탄을 이긴 자다! / 사탄은 너희 육이 자기 육도 아닌데 자기 육으로 쓰면서, 너희 영성을 꺾고 하늘의 뜻을 꺾고 너희 육이 하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 말씀의 도끼로 사탄의 골을 쪼개 놓아라! 말씀의 도끼는 너희 모두에게 다 줬는데 안 써 먹어서 빨갱게 녹이 슬었다. 사탄이 녹슨 도끼 보고 안전하다 한다. / 또한 사탄은 너희 육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안일주의의 삶으로 인도한다. 그같이 너를 인도하는 사탄의 발목을 말씀의 도끼로 찍어 영원히 불구자로 만들어라!

14. 사탄이 너에게 왔는데, 사탄을 두고 잠자느냐. 방에 모기만 들어와서 웅웅거려도 신경 쓰여 잠 못 자는데, 사탄은 그보다 만 배나 더 해를 끼치고 유유히 떠난다. 말씀의 도끼를 던져서 사탄 뒤통수에 꽂아라!
15. 선생은 주님께 배워서 돌의 비밀과 값을 알고,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고 은밀하게 값싸게 돌을 구해다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지었다. 이미 15년이 흘렀으니, 이제 모두에게 알려 준 것이다. 돌 하나 보고서 논도 사고 받도 산 것이다. 논과 밭에서 나온 돌이 논과 밭 값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16. 이와 같이 ‘진리의 보물’ 이 들어 있는 역사를 네 것으로 삼아라!
17. ‘진리’ 하나 가지면 부자가 된다. 주님은 그 진리를 가지고 형통하게 해 주셨다. 선생은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신 ‘예정론’ 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틀고 비행하기 시작했다.
18. 그 귀한 시대 말씀을 너희들에게 줬는데도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만큼도 위력을 못 나타내니, 진리를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단들도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데, 시대 온전한 진리를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며 껏속말로 전하니, 복음이 빨리 전파되지 않는 것이다.
19. 시대 채림의 말씀은 2000년이나 기다렸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지구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모르는 말씀이다. 그들은 섭리의 진리를 가져다가 외람되게 전한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전하니,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로 간다.

20. 이단들은 6개월씩 비진리를 가르치면서, 사귀고 친해져서 교리보다 인맥으로 뻗어 나간다. 그러면서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며 안 가르치고 호기심을 주면서 자기 사람 만들어 놓는다. 마치 시골 시장의 약장사같이 보여 줄 것은 안 보여 주고 약은 다 팔고 가듯 한다. 그들이 교리를 내놓으면 그릇된 것이 탄로 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섭리사는 이 귀한 진리를 거저 주려고 한다. 먼저 사람을 만들고, 인식관을 바로 해 주고, 맨 나중에 진리를 줘야 한다. 쉽게 끓은 물은 쉽게 식는다.

<2012년 12월 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꿈보다 해몽이다.

2. 존재물보다 설명이다.

3. 내용보다 설명이다.

4. 존재물보다 사연이다.

5. ‘말’ 이 그리 중요하다. ‘설명’ 이 그리 중요하다.

→ $1+1=2$ 인 것은 누구나 다 안다. $1+1=2$ 라고 하는 것보다 1 더하기 1은 왜 2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말의 위력이다!

6. 숙달하고 집중해야 달인 된다.

7. 저마다 자기가 달인이 됐어도 모른다.

8. 달인도 나름이다. 개성대로 달인이다.

9. 세계적인 달인이냐, 민족적인 달인이냐, 한 지역의 달인이냐가 다르다.

10. ‘순간적’ 달인이 있고, ‘꾸준한’ 달인이 있다.

11. 숙달하여 빨리하면 달인이다.

12.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다 달인이다.
13. 사물이나 사람을 잘 증거하는 달인도 있다.
14. 정신적 달인, 혼적 세계 달인, 영적 세계 달인이 있다.
15. 시간을 주관하는 축지의 달인이 있다.
16. 사탄 마귀를 잡고 주관하는 달인이 있다.
17. 글 잘 쓰는 달인이 있다.
18. 기도의 달인이 있다.
19. 자기에게도 달인의 잠재 능력이 있는데, 모르고 행치 못하고 있다.
20. 천사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자도 달인이다.
21. 구상의 달인이 있다.
22. 작품의 달인이 있다.
23. 설교의 달인, 제스처의 달인이 있다.
24. 설명의 달인이 있다.
25. 형상석의 달인이 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달인은 본다.

26. 저마다 달인이 될 만한 것이 있다. 확인해 보아라.
27. 지혜의 달인이 있다.
28. 월명동 약수는 많은 물 중에서 병 고치는 물 달인이다.
29. 설득의 달인이 있다.
30. 감동의 달인이 있다.
31. 능력을 부리는 신 같은 달인이 있다.
32. 묘기의 달인이 있다.
33. 성자 주님과 이야기하는 달인이 있다.
34. 마사지 비법의 달인이 있다.
35. 일 처리 달인이 있다.
36. 로비의 달인이 있다.
37. 악평의 달인이 있다.
38. 혈기의 달인이 있다.
39. 편지 잘 쓰는 달인이 있다.

- 40. 잠언의 달인이 있다.
- 41. 제대로 보고를 잘하는 지혜로운 달인이 있다.
- 42. 건강하게 사는 자들은 건강의 달인이다.
- 43. 어떤 것을 빨리하되 능숙하게 잘하면 달인이다.
- 44. 도사들을 달인이라 한다.
- 45. 외줄 타기 잘하는 자도 달인이다.
- 46. 관리의 달인도 있다.
- 47. 전도의 달인도 있다.
- 48. 그림의 달인이 있다.
- 49. 사탄은 거짓말의 달인이다.
- 50. 월명동 관리와 개발의 달인도 있다.
- 51. 방법론의 달인이 있다.
- 52. 사물을 잘 보고, 사람을 잘 보는 달인이 있다.
- 53. 도둑질 잘하는 달인이 있다.

54.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달인이 있다.

55. 손도 안 대고 얼굴도 안 보고 천 리, 만 리 떨어져 있어도 그 행위
대로 축복해 주거나 고통을 주어 대가를 받게 해 주는 달인도 있다.

56. 소쩍새는 밤새워 우는 슬픔에 겨운 새 달인이다.

57. 게으름의 달인들이 많다.

58. 일 잘하는 달인이 있다.

59. 자기도 개성대로 달인인데, 모르고 있다.

60. 잘하면 작고 크고 모두 달인이다.

61. 잘하고 빨리하면 달인이고 기록자다.

62. 연속해서 해 봐야 달인이 된다.

63. 달인은 전문가다.

64. 달인은 4차원 세계에 속한 자다.

65. 달인은 시간을 초월해서 한다.